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만나다

“100년 잘츠부르크 축제에 초대해요”

‘이탈리아 클래식’ 7~11일 광주극장 ‘붉은 사막’ 등 6편...이용철 씨네토코도

현대영화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을 담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네마테크는 ‘이탈리아 클래식:네오리얼리즘의 흔적들’을 7일부터 11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연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1960~1980년대 이탈리아 영화 6편을 상영하며 영화를 통해 네오리얼리즘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로베르토 로셀리니와 비토리아 데 시카 등 이탈리아 감독들은 전쟁 후 폐허가 된 공간과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담아내며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들 영화를 고전의 시가에서 모던의 시기로 전환시켰고,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영화의 위상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상영작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의 첫 번째 컬러 영화로 1964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붉은 사막’(1964), 상실의 슬픔을 서로 보듬지 못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루이지 코멘치니 감독의 ‘천사의 시’(1967), 수많은 팬을 지닌 호러영화의 거장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희색 벨벳 위의 네 마리 파파’(1971)다. 또, 데카당스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작품을 각색한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순수한 사람들’(1976), 급변하는 사회 속 가족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한 냉소적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에도레 스펀라 감독 ‘추하고 더럽고 미친한’(1976), 삼형제를 통해 이탈리아 사회의 다양한 면모와 변화를 담은 프란체스코 로지 감독의 ‘삼형제’(1981) 등도 스크린에 오른다.

9일 오후 2시 50분에는 네오리얼리즘의 시대적 배경과 이후 영화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는 씨네토코가 마련된다.

이날 씨네토코에는 영화평론가 이용철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제71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 대상을 수상한 알리 아바시 감독의 영화 ‘경계선’, 188편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96인의 인터뷰를 통해 할리우드 미디어 산업 안팎에 만연한 기회 불균등과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우먼 인 할리우드’, 독특하고 참신한 소재와 감각적인 연출로 새로운 SF스릴러에 대한 경향을 선사하는 ‘하이 라이프’가 1일부터 상영중이다.

또 7일부터는 대만 뉴에이브를 이끈 에드워드 양 감독의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과 ‘하나 그리고 둘’에 이어 34년 만에 국내 관객들과 만나는 ‘타이페이 스토리’가 상영된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천사의 시’



‘삼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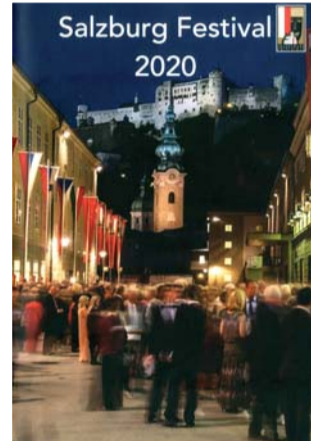
슈타들러 대표, 한국어서 설명회 WCN 주최...44일간 200차례 공연

세계 최고의 클래식 축제로 꼽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내내 100주년을 맞는다. 1차 대전의 공포가 끝난 1920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평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획된 잘츠부르크페스티벌은 단 한 편의 연극작품으로 시작해 올해 43일간 199개 공연을 선보인 메머드급 축제로 성장했다. 올해 축제를 찾은 관객은 78개국 27만 명으로 티켓 판매율은 97%, 수입은 3120만 유로에 달했다.

지난 1995년부터 축제를 이끌고 있는 헬가 라블 슈타들러(사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대표가 직접 참석한 ‘2020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한국 설명회와 기자간담회’가 지난 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4번째 맞는 이번 설명회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식 파트너 오스트리아 빈에 거점을 둔 음악기획사 WCN(대표 송호숙)이 주최한 행사다.

100주년을 맞는 2020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4일간 16개 공연장에서 모두 200차례 관객을 만난다.



마우리치오 풀리니,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 등 거장들의 무대도 이어진다.

지난해 설명회에서 2020년 데뷔 무대를 갖는 것으로 발표돼 관심을 모은 피아니스트 조성정의 데뷔 일정과 관련해서는 페스티벌 오프닝 무대 등을 놓고 현재 조

정중이며 2021년 이후에는 정규 프로그램 안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페스티벌은 단순히 유명한 예술가들을 불러모으는 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6주 동안 함께 모여 ‘팀’으로 움직이며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션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페스티벌은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오페라의 박물관처럼 되어서 안되고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츠부르크페스티벌이 ‘특별한 것의 진앙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한국 클래식 팬들이 현장에 와서 그 새로운 작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페스티벌의 유일한 한국 공식 파트너인 WCN은 내년 축제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렌즈 오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식 후원회’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어 패키지를 준비중이다.

한편 WCN은 세계 최정상급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 공연도 진행했다. 빈필은 1일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마에스트로 크리스티안 텔러만의 지휘로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을 연주했으며 3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등을 들려줬다. WCN은 내년 11월 2일~3일에도 한국에서 빈 필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

다. /서울=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한국화가 하용주

우수상 임현채·신진작가상 윤준영

한국화가 하용주(40) 작가가 제2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4일 1차로 선정된 9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목표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과를 졸업한 하 작가는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10기 장기 입주작가(2016~2018), 국립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5기 장기 입주작가(2008~2009)를 지냈으며 지금까지 8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우수상은 임현채(상금 500만원), 신진작가상(상금 300만원)은 윤준영 작가가 수상했다.

지역미술 활성화와 유망작가 발굴을 위해 신세계갤러리가 진행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실질적인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주최측은 작가들이 접수한 포트폴리오 등 웹심사를 통해 1차로 작가 9명을 선정하



하용주

고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한 후 심사위원들이 직접 작품을 보고 작가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올해 심사는 김성연(부산현대미술관 관장), 홍승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황석권(월간미술 편집장) 씨가 맡았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이번 공모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시작으로 작품 심사와 작품에 대한 작가의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들어보는 인터뷰까지 단계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올해 9명의 작가는 수상자 이외에 김영봉, 김태형, 이혜리, 정진용, 정희정, 최수연 작가가 포함됐으며 이들의 대표작은 오는 1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 전시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5시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용주 작 'Blind'

광주시민인문학 73기 정기강좌, 30일까지 인문학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 73기 정기강좌가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에서 열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목요일 제외)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역사, 문예비평, 현대문학,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김봉국 교수가 ‘호남의 사회·역사·80년이 쓰여진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격주) 문예비평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이야기한다. 수요일과

일과 금요일에는 명혜영 교수와 김정우 교수가 각각 ‘도감(圖鑑)으로 이해하는 철학용어’, ‘지역 청년시인 로컬을 말하다-남도의 시인과 시학’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모임 시간으로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이 진행된다. 희망자는 기수별, 강좌별로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들의 문화 창의성이 ‘쑥쑥’

아시아문화전당 7일 ‘2019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포럼’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자리는 성별, 장애, 세대 등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는 취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2019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오는 7일 오전 10시 문화정보원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다.

기조강연에서는 오순옥희 사단법인 ‘누구나’ 이사장이 ‘누구나 예술로 소통’을 주제로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이야기한다. 이어 1부에서는 ‘캐나다 예술교육의 다양성, 형평성과 포용’(유정석 Indefinite Arts Centre 대표), ‘달라서 재미있는 우리’(진소는 아시아문화원 교육사업

팀), ‘대한민국은 태극기 동남아시아는???’(디케타) 마유미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발표된다.

2부 ‘미디어’를 주제로 한 시간에는 ‘올리블리 그림동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사례’(정희남 다음세대재단 프로젝트매니저),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TV시리즈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윈스’ 기획 및 제작 사례’가 이어진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박남희 아시아문화원 교육사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 전원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청각장애인 참가를 위해 수어통역이 영한 동시통역과 함께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